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이 대인관계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미정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skills and peer relationships in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Mi-Jung Kim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이 대인관계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U시 학교부적응 청소년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 하위요인인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성인식, 감성활용 요인은 대인관계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인 감정조절 요인은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은 하위요인인 자기감성인식 요인만 또래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인 타인감성인식, 감정조절, 감성활용 요인은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의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성인식, 감성활용 요인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지며, 자기감성인식 요인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만한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능력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interpersonal ability and peer relationships of maladjusted school-going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66 adolescents who did not adapt to the school in U city. For the analysis, frequency, reliability,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First, the sub-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such as self-emotional recognition, emotional recognition, and emotional utilization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ability. However, the emotion regulation factor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personal ability. Second, it was found that only the self-emotional recognition factor, which is a sub-factor of emotional intellig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peer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the sub-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such as emotional recognition,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 utilization factors, did not affect peer relationships. This shows that the higher the self-emotional recognition, the emotional recognition, and the emotional utilization 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higher the interpersonal ability, and the higher the self-emotional recognition factor, the better the peer relationship.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preparing measures for improving peer relationships and the interpersonal skills of maladjusted school-going adolescents.

Keywords : School Maladjustment Adolescent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Skills, Peer Relationships, Emotional Recognition of Others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Jung Kim(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kmj5044@naver.com

Received August 24, 2021

Revised September 28,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의과학과 산업화의 발달 속에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코로나19사태와 같은 문제, 상황 속에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인생의 전 발달 단계에서 가장 큰 혼란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는 정체성의 혼란 및 진로 등의 문제로 청소년 시기는 일상적인 공동체 활동, 학업, 또래관계에서 겪는 갈등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들 중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문제와 위기의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져가며 가정과 학교,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부적응으로 또는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된 사랑의 교실(경찰청 프로그램)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감성지능을 높이는 프로그램 인식을 중심으로 대인관계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 혹은 가정과 사회,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 속에 청소년들의 학교 이탈, 집단 폭행, 절도, 흡연, 음주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처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즉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학교 적응 및 공동체에서 적응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특징으로는 대인관계 기술과 부모 관계, 형제 관계와 교사 관계, 또래 관계 등이 있으며, 학업 관련 요인은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적 또한 학교 분위기, 학업 성취도, 학업 곤란, 학업 스트레스, 학교 생활태도 등이 있다. 또한 성적 부진, 학교의 구조화된 활동의 부적응, 추상적 사고, 일반화, 관계 형성에 어려움, 무단결석, 장기 결석률이 높고 특별활동에 불참,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진로 정체감과 진로 성숙도, 진정 수준, 진로 준비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2].

이와 같은 요인에서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등의 경험은 더욱 심각해졌으며, 학교부적응이라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3]. 이러한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의 재범률과 비행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청 여성 청소년계 스쿨폴리스의 활동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예술심리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으며, 연간 U시의 K연구소를 통해 500여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 및 공동체로 복귀하는 실정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실제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심리적, 감성 지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Table 1과 같다.

1.2 연구의 목적

위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예술 심리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실행함으로써 감성과 정서지능 등에 영향을 끼치며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게 중요한 변인으로 감성지능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의 감성지능이란 감성과 지능의 복합어로서, 지능은 타고 나는 것으로, 삶의 경험에 따라 바뀔 수 없는 정해진 것이며, 반면 감성지능은 교육으로 후천적으로 습득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지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5]. 따라서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비해 인지하는 감정과 높은 사고를 하며 그런 감정을 사용하고, 그런 감정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잘 관리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 비해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지적인 노력이 덜 요구된다. 또한 언어적 사회적 지능 및 다른 지능들도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며, 더 개방적이고 쾌활한 경향이 있다.

즉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향후 사무직이나 행정업무와 관련된 직업보다 교육이나 상담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직업에 더 끌리므로 청소년들이 문제 행동에 연루될 확률이 낮으며, 가정에서는 정서적으로 애착심을 갖는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갖는 경향이 있고, 동기부여적인 목표, 목적 및 임무를 설명하는 데 능숙하다고 할 수 있다[6]. 이와 같이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게 감성지능은 나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감성지능의 발달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동기화 시키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하며 충동을 통제하거나 늦출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등 전통적인 지능보다 더욱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7]. 이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으로부터 영향 관계인 중요한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요소로 대인관계능력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대인관계능력이란 '인간은 누구나 생존하기 위해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군거성 동물에 속하며, 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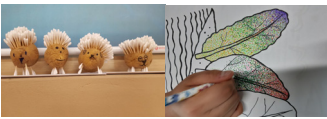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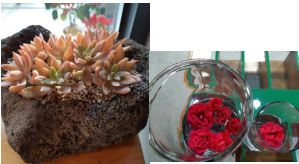
과의 관계를 통해 상호의존하고 친밀감과 애정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대인관계는 삶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삶의 수단이며 살아있다는 것은 곧 대인관계의 연속을 말한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의 태도 파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격을 알고 싶어 한다. 성격은 다른 사람과 관계 교류에서 상대를 가장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는 대인관계의 상황이기 때문이다[8].

그리고 대인관계능력이란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이 삶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해 발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하며 소속 집단 내구성원이나 집단 외 개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요구되는 갈등 완화나

의사소통, 원만한 대인관계 과정 등을 무난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종합적인 능력인 것이다[9]. 즉 대인관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매우 기본적인 자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유교적인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이 속한 한국 사회에서는 성숙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0].

이와 같이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변인들을 바탕으로 대인관계능력의 폭넓은 개념에서 살펴본다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의 또래지지의 중요성을 두고 좀 더 구체화된 개념으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또래관계는 나이가 비슷하며, 인지, 정서, 사

Table 1. Art Psychology Program and Content

Program name	Art Psychology Program and Content	Activity pictures
Art psychology occupational therapy	Analysis through art and art psychotherapy work program according to status	
	·Initial interview through H.T.P technique ·Various occupational therapy programs such as strengthening concentration and relieving stress (pointillism, hedgehog making, collage, etc.)	
Exercise therapy	Physical activity area strengthening and rehabilitation program through exercise	
	·Understanding body structure ·Learn a sense of balance ·Knowing exercise therapy in daily life ·Social development program guidance	
Craft therapy	Small and large muscle development, functional recovery and aesthetic development program through crafts	
	·A play technique that satisfies the five senses of infants and toddlers ·Aesthetic enhancement and anxiety relief program for adolescents ·Degenerative sensory recovery program for young and old ·Functional recovery program for the disabled	
Music therapy	A program to relieve depression and anxiety and improve empathy through music	
	·A program to listen to, sing, and participate in music that enhances stability ·Program to relieve stress and develop empathy with percussion instruments	
Forest, horticultural therapy	A program to restore the balance of life and improve stability through forest, nature, and horticulture	
	·A program that can heal and improve peers, family, and social support by raising succulents, arranging flowers, walking in the forest, and experiencing ecology	

Reference : Dr. HaeKyoung, Cho, Great love dream contents research institute.

회적 발달의 정도가 비슷하여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개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친구를 통해 다양한 또래관계를 형성, 성장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중요한 대인관계의 한 종류이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도 하다[11].

또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또래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수평적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친구 간의 사회적 교환은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성인 간의 사회적 교환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가족 간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의 관계로 유지되는 것과 다르며,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는 친구들과의 상호교환관계 속에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12]. 이를 종합해보면,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정의는 비슷한 나이와 성숙 수준에 있는 사이로 동등한 위치에서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친밀한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또래관계는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같은 학년, 같은 학급에 속한 아동들과의 수용과 인정을 받으려는 지속적인 상호간의 역동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13].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집단 미술치료 매뉴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적응 원인요인을 밝히는 연구과정에서 개인의 신체, 인지, 정서 요인이 있지만, 학교관련 요인으로는 교사, 또래관계가 나타났다.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대인관계와 환경인 것으로 나타나, 감정과 정서, 감정조절 등을 나타내는 감성지능의 중요한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다[14]. 이와 같이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 이야말로 이들의 대인관계능력과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나타났다. 따라서 감성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대인 관계 능력과 또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선행 연구를 통해 파악이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이 대인관계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적 불안, 가족지지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또래관계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원만한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능력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또래관계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이 대인관계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이 또래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01월 09일까지 U시의 N구에 소재한 K연구소의 사랑의 교실 참여자인 학교부적응 청소년 66명(사랑의 교실 시스템 지정기관 중 1곳으로 3개월 프로그램 진행 중 참여자 수의 제한이 있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7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4부를 제외한 66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3문항, 감성지능 16문항, 대인관계능력 40문항, 또래관계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학년구분, 종교유무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을 측정하기 지명근[15]이 사용한 감성지능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자기감성인식 4문항, 타인감성인식 4문항, 감정조절 4문항, 감성활용 4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신미경[16]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진원식[17]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감성지능의 전체 신뢰도는 .623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

고 대인관계능력의 전체 신뢰도는 .715의 신뢰도가 나타났다. 또한 또래관계의 전체 신뢰도는 .695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Emotional intelligence	16	.623
Interpersonal skills	40	.715
Peer relationships	24	.695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으며,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이 대인관계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 30명(45.5%), 여자 36명(54.5%)으로 여자 보다 남자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구분은 고등학생이 35명(53.0%)으로 중학생 31명(47.0%) 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교는 유 43명(65.2%), 무 23명(34.8%)으로 종교가 있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tal(N=66)	
		Frequency	Ratio(%)
Sex	Male	30	45.5
	Female	36	54.5
Grade Classification	Middle	31	47.0
	High	35	53.0
Religion	Existence	43	65.2
	Absense	23	34.8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감성지능에 대한 기술통계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감성지능 요인의 전체는 M=3.75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감정조절(M=3.84)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타인감성인식(M=3.78), 자기감성인식(M=3.73), 감성활용(M=3.66)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emotional intelligence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self-emotional awareness	66	2.50	5.00	3.73	.43
Emotional recognition of others	66	3.50	4.50	3.78	.26
Emotion regulation	66	3.25	4.75	3.84	.36
Emotional utilization	66	2.75	5.00	3.66	.48
Total	66	3.25	4.31	3.75	.24

3.2.2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대인관계능력 요인의 전체는 M=3.62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지지(M=3.81)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관계(M=3.71), 자기효능감(M=3.63), 심리적요인(M=3.55), 환경 및 생활만족(M=3.4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interpersonal skills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Total	66	3.10	4.05	3.56	.21

3.2.3 또래관계에 대한 기술통계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또래관계 요인의 전체는 M=3.55로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n peer relationships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Total	66	3.04	4.04	3.55	.22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과 대인관계능력은 낮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245, p<.01$). 그리고 감성지능 요인과의 또래관계 요인도 낮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236, p<.01$). 반면, 대인관계능력과 또래관계 요인은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400,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skills	Peer relationships
Emotional intelligence	1		
Interpersonal skills	.245**	1	
Peer relationships	.236**	.400**	1

* $p<.05$, ** $p<.01$

3.4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또래관계과의 관계

3.4.1 감성지능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감성지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326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2.6%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078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7.367,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감성인식(β

$=.444, p<.05$), 타인감성인식($\beta=.253, p<.01$), 감성활용($\beta=.248, p<.01$) 요인은 대인관계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인 감정조절($\beta=-.587, p>.05$) 요인은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 하위요인인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성인식, 감성활용 요인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Skill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β		
Interpersonal skills	Constant	2.851	.441		6.459***	
	self-emotional awareness	.224	.059	.444	3.770***	.798
	Emotional recognition of others	.212	.092	.253	2.309*	.919
	Emotion regulation	-.347	.074	-.587	-4.686	.705
	Emotional utilization	.112	.054	.248	2.093*	.790

$R^2=.326$, Modified $R^2=.282$

$F=7.367$, $P=.000$, Durbin-Watson=1.078

* $p<.05$, ** $p<.01$, *** $p<.001$

3.4.2 감성지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또래관계에 대한 감성지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139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13.9%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411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2.471,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감성인식($\beta=.310, p<.05$) 요인만 또래관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인 타인감성인식

($\beta=.226$, $p>.05$), 감정조절($\beta=-.317$, $p>.05$), 감성활용($\beta=.163$, $p>.05$) 요인은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 하위요인인 자기감성인식 요인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Peer Relationship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β		
Peer relationships	Constant	2.670	.517		5.166***	
	self-emotional awareness	.162	.069	.310	2.335*	.798
	Emotional recognition of others	.196	.108	.226	1.823	.919
	Emotion regulation	-.195	.087	-.317	-2.244	.705
	Emotional utilization	.077	.063	.163	1.223	.790

$R^2=.139$, Modified $R^2=.083$

$F=2.471$, $P=.000$, Durbin-Watson=1.411

* $p<.05$, ** $p<.01$, *** $p<.00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또래관계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인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성인식, 감성활용 요인은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감성지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326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2.6%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값이 1.078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성인식, 감성활용 요인은 대인관계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인 감정조절 요인은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 하위요인인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성인식, 감성활용 요인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인 자기감성인식 요인만 또래관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또래관계에 대한 감성지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139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13.9%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값이 1.411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감성인식 요인만 또래관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인 타인감성인식, 감정조절, 감성활용 요인은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 하위요인인 자기감성인식 요인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또래지지 및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지만,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대두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은 대인관계 및 또래관계를 돕는다[4]는 선행연구는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다는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되었다[2,11]. 이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의 요인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과 또래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송명훈(2016)의 학교 음악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게는 ‘학교와 대인관계, 또래관계의 상호간의 조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입힌다’라는 연구 결과[18]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해 감성지능, 대인관계,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에 실시하고 있는 예술심리치료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활성화 및 연구 개발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U시 N구의 사랑의 교실 지정기관 1 곳을 선정한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방법의 한계가 있으며, 중, 고등 연령대를 기술이 부족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 간 연구로 폭 넓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문제를 개인의 상처와 위기로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 넓은 이해와 프로그램 개발을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등과 같은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대인관계 및 또래관계를 높이기 위해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감성지능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여 체계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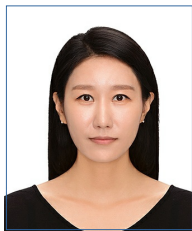
- [1] H. K. Cho, S. J. Cho,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of Food Therap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Purpose in Life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with School Maladjustment", *Asia-pacific Journal or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5, No.4, pp.49-64, 2019.
DOI: <https://doi.org/10.21742/apicri.2019.12.06>
- [2] E. J. Ju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VI: Data Analysis Report 2 - Longitudinal study of youths' adaptation to school life with their peer relationship,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pp.7-12.
- [3] D. H. Kim, "A Study on the Longitudinal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Truant Youth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71, No.2, pp.175-194, 2019.
DOI: <https://doi.org/10.20970/kasw.2019.71.2.007>
- [4] E. S. Lee, *The Eff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and Emotional Labor of Art Psychotherapists on Job Burnout and Life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bang Culture University, pp.49-59, 2021.
- [5] M. K. Jo,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effects of culture and arts activities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expansion of youth focusing on the youth art school in busan jingu*,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illa University, pp.17-24, 2021.
- [6] J. D. Mayer, P. Salovey, D. R. Caruso, "TARGET ARTICLES: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Finding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Inquiry*, Vol.15, No.3, pp.197-215, 2004.
DOI: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503_02
- [7] J. E. Cho,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kills in the Relations Between Musical Interest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p.69-78, 2013.
- [8] S. M. Kwon, *Personality psychology for understanding human beings*, p.637, Seoul: Hakjisa, 2017, pp.15-23.
- [9] M. J. Han,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nger-control ability on group activity in the elderly :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Venture University, pp.17-25, 2019.
- [10] H. S. Suh, *Effects of fathering attitude on self-esteem, interpersonal skills and resilience of children close to adulthood*,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Venture University, pp.40-50, 2014.
- [11] H. S. Jang, *Influence on the empathy ability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 in elementary school upper grades through a restorative life education program to build relationship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pp.13-16, 2019.
- [12] M. S. Hong, *The effect of adolescents' relationship-building on adaptation to school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Hanyoung University, pp.110-114, 2018.
- [13] E. H. Park,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School Art Therapy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Peer Relationship and Class Cohesiveness in the Case of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pp.123-131, 2021.
- [14] E. J. Choi, *A Study of Program to develop Group Art Therapy Manual for Maladjusted Adolescence in School : Focusing on meta Analysis of Studies Art Therapy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2005-2015*, Ph.D dissertatio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pp.20-22, 2017.
- [15] M. K. Ji,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ports Activity Engagement, Smartphone Addiction, Emotional Intelligence, Cognitive Flexibility and Antisocial Tendency for Adolescents*,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pp.20-22, 2015.
- [16] M. K. Shin,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interes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the relationship*,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Daejin University, pp.38-51, 2020.

- [17] W. S. Jin, *A study on effect of degree of using smart phone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and parental relationship*,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pp.47-53, 2018.
- [18] M. H. Song,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School Music Counseling Program using Percussion Improvisation for Improving the Resilience of Adolescents with School Maladjustment*,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pp.124-139, 2021.

김 미 정(Mi-Jung Kim)

[정회원]



- 2021년 12월 : Oxford University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 2020년 9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시간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치매재활, 식품영양, 교육, 임상심리